2025. 11. 17

금융 Weekly Insight

보험사 실적 우려 확대, 주주환원 차별화 기업에 관심 상승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5년 11월 셋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박준규 Analyst jun.kyu.park@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지난주는 미국 발 AI 중심 증시 조정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지속.
- 이에 그간 소외되어 있던 은행주가 높은 주가 상승률을 시현한 것은 물론, 이전 주 급락했던 증권주도 견조한 주가 상승세를 시현. 다만, 전주 실적을 발표한 보험업종의 경우 보험손익 어닝 쇼크 확대에 따라 주초 상승분을 반납하며 부진하였음.
- 또 다른 주요 특징으로, 연말-내년 초 배당시즌 진입에 따라 업종 내 주주환원 강세 종목(ex.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이 상대적으로 주목 받았음.

금융 Overview

- 은행 - 은행주는 3.7% w-w 상승하며 KOSPI 1.5% w-w 상승 대비 outperform. 미국 발 AI 중심 증시 조정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 가운데, 은행주는 추가적인 상승세 시현. 특히, 국내 은행주는 여전히 26E PBR 0.7배로 Valuation 매력도가 높고 연말 정책발 이슈들이 리스크보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 필요. 즉, 1) 상법 개정에 따른 분리과세 이슈와 2) ELS 과징금 관련 불확실성 완화가 관건인데, 지난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당초안 35%에서 25%로, ELS과징금은 11월 중 통보하되 당초 우려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여전히 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해당 사안이 언론보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드러날 경우, 은행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
- 증권 - 증권업종은 4.7% w-w 상승하며 KOSPI 1.5% w-w 를 outperform 하였음. 전주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으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증권업종은 전반적으로 모든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우수한 실적을 시현하였음. 주요 특징으로는 연중 내내 주가 강세였던 미래(+1.3%), 키움(+2.3%) 등의 상대적 상승세 둔화 및, NH(+7.4%), 삼성(+9.3%) 등이 강세를 보인 점임. 이는 1) 연말 금리 상승 등 증권업종 전반 3분기 대비 이익 Peak-out 가능성에 따른 상대적 보수적 운용 기조 증권사 관심 증가 및, 2) 배당 시즌 진입에 따른 업종 내 배당주 수급 증가 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증권 업종의 경우 다소 모멘텀은 정체되었다는 피드백이 강하나, 4분기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에서 유지되고 있어, 시장 우려 대비 실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
- 보험 – 보험업종은 0.5% w-w 상승하며 KOSPI를 underperform 하였음. 전주 커버리지 모든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보험사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3분기 부진의 핵심은 보험금 청구액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 및 예실차-손실부담계약비용 등 손익 지표 악화에 기인. 이러한 실적 부진은 프리뷰 시즌을 통해 일부 예견된 상황이었으나, 1) 예상 대비 손익 감소의 폭이 크고, 2) 회사별 가이던스 측면에서 손해율 상승이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 다만, 1)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경험요율 조정(보험료 인상)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2) 손익을 제외한 신계약CSM 성장, K-ICS 비율 개선 등 펀더멘탈 지표는 개선세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비중확대 관점에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판단.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1/10) 5대 금융 생산적 금융 향후 5년간 508조원 투입** - 5대 금융그룹 (KB, 신한, 하나, 우리, NH)이 향후 5년간 생산적 및 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할 계획. - 가령, KB금융의 경우 110조원 중 93조원이 생산적금융, 17조원이 포용금융에 투입. 이 중 생산적금융 93조원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1조원, 대출 68조원으로 구성. 포용금융은 금융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집행.	**5대 금융그룹 계획은 유사:** 5대 금융그룹이 발표한 규모는 상당히 유사. 1) 규모는 각각 110조원 내외 수준이고, 2) 이 중 국민성장펀드에 각각 10조원을 배정하였으며, 3) 생산적 금융에 대한 지분투자 규모 및 대출 규모도 유사한 수준. **연간 20조원 내외 부담 - 부담보다는 합리적 선택 관점에서 접근이 보다 유효:** 당초 생산적 및 포용금융 관련 은행들의 부담 우려가 있었으나,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합리적 수준에서 규모 및 내용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효하다고 판단. KB금융의 경우, 연간 22조원은 각 총자산 796조원의 2.8% 수준임. 한편, 대출 공급은 다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존 대출의 만기 도래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향후 자본비율과 수익성 관리 등에 있어 관건이라 판단.
	(11/10) 생산적금융 경쟁에 기업대출 금리 3%대로 하락 -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 기업대출 금리는 3%대로 떨어지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남. 은행이 생산적 금융에 나서며 기업대출 금리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으로 보도. 특히,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대기업이 3.91%, 중소기업이 4.05%를 기록한 가운데, 변동형 주담대 금리 4.08%를 하회. - 이에 일각에서는 은행 수익성 악화는 물론 급격한 대출 증가 과정에서 부실자산이 편입, 추후 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	**기업대출 금리 하락 - 은행간 경쟁 심화:** 분명 은행들의 기업대출 금리 하락은 은행간 경쟁 심화가 일차적 원인으로 판단. 실제로 기업대출 증가 폭은 연율화 기준 8.3%로 다소 높아진 상황 (10월 기준). **금리 경쟁은 NIM에 부담은 맞으나 은행들의 합리적 경영 가능성에 초점 필요:** 은행의 과도한 경쟁 및 이에 따른 금리 하락은 수익성에 부담 요인. 실제로 지난 해에도 은행간 주담대 경쟁 심화는 은행들의 NIM 하락을 견인한 요인. 즉, 작금의 경쟁 심화가 이어질 경우, 이는 은행 NIM 하락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그러나, 은행들이 과거와는 달리 보다 합리적 경영 기조를 가져갈 수 있음에 초점 필요. 일례로, 3Q 실적에서 드러난 것은 은행들이 환율 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3Q 중 자산 증가 속도를 관리한 점. 즉, 과거와 달리 은행들의 자산 성장에 대한 기조는 분명 개선되었음을 주목 필요. **건전성 악화 우려 - 다소 과도 판단:** 기업대출 경쟁 심화가 부실 자산 편입을 늘려 안 그래도 어려운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 이는 은행들의 건전성이 이미 악화된 사이클의 최악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은행들은 상당한 규모의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해 놓았으며,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증가 사이클에서 건전성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
	(11/10) 배당소득 최고 세율 25% 추가 인하 추진 - 당정대가 주가 부양 및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지속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 즉, 기존 최고 세율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의 가능성이 제기. 참고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5% 세율이 적용. -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심사 시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해당 시한이 지나가면 정부의 기존 원안이 자동 본회의에 부의.	**세수 vs 주식 시장 활성화 -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가 관건:** 배당소득세 인하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증시가 보다 다양한 금융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어 시장의 질적 및 양적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또한 존재. 특히, 정부의 주식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효과를 기대 가능. **은행주의 수급 구조 개선 기대:** 은행주는 배당소득세 인하에 따라 긍정적 효과 기대 가능. 이는 은행주는 대표적 배당주인 가운데, 현재 소유 구성 상 외국인 비중은 높은 반면, 개인은 낮기 때문. 즉, 배당소득세 인하가 안정적 배당 수익을 필요로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은행주의 수급 구조를 보다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1/11) 예금금리 2개월 사이 0.3%p 상승** -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대표상품 금리는 2.65~2.75%로 2개월 전에 비해 상단이 22bp 상승. 정기예금 금리 상승은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기예금 금리 반짝 인상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지만 장기화되기 어려울 전망인 것으로 해당 언론은 보도.	**연말 특수성 고려 필요:** 정기예금은 1년 전 판매된 자금의 재예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일례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연말 예금 금리가 급등한지 1년 후, 해당 예금 만기 도래 구간에서 은행들은 재차 예금금리를 높인 경험이 있음. 즉, 지난 수년간 4Q 중 은행의 고금리 정기예금이 판매, 만기 도래하는 패턴이 올해도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 **4Q 정기예금 금리 상승에도 불구, 롤오버에 따른 NIM 개선 효과 주목 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4Q 중 정기예금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은행 NIM에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기대 가능. 이는 기존 판매된 정기예금 금리와 현재 롤오버되는 정기예금 금리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즉, 현재 판매되는 예금금리 수준은 2년 전에 비해 크게 낮은 만큼, 3Q대비 금리가 다소 올라도 은행입장에서는 여전히 NIM에 긍정적 판단.
	(11/11) 11월 들어 은행 신용대출 급증 - 11월 들어 1주일 만에 신용대출 잔액이 1.2조원 증가. 이는 증시 활황 및 주담대 규제 강화 영향. 참고로, 이는 지난 21년 7월 증가 폭 1.9조원 이후 4년 4개월만 최대 규모. - 참고로, 금투협이 발표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사상 최대치 경신. 해당 잔고는 26.2조원으로 21년 9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	**은행권 신용대출 건전성 및 NIM 관점 긍정적:** 은행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우량 차주 중심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전성 리스크는 크지 않고, 오히려 금리 측면에서 NIM에는 긍정적으로 판단. **다만, 시스템 전반 관점에서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부담 요인:** 다만, 시스템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차주가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부담 요인. 특히, 해당 자금이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자산 매입에 활용되었을 경우, 향후 자산 가격의 조정이 수반된다면 레버리지를 높였던 차주들의 부실화가 시장의 가격은 물론 금융사의 건전성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고려 필요.
	(11/11) 국민은행 주담대 - 변동금리가 고정 하회 -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담대 고정형의 금리가 변동형대비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 KB의 경우, 5년형 주담대 금리가 4.02~5.42%로 반면 변동형은 3.88~5.28%로 고정형 하단이 14b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년 5개월만에 나타난 현상. - 은행채 금리는 5년물 기준 3.3%를 기록, 9~10월 2.8~2.9%대에 머물던 수준에서 한 달만에 급등. 이는 은행 주담대 고정형 금리에 부담으로 작용.	**고정형 주담대 비중 확대 필요성 감안 시 비우호적 환경:** 금융당국은 가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정형 주담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고, 은행들 또한 이를 위해 고정형 금리를 변동형 대비 낮게 제시. 그러나, 은행채 금리 상승은 이와 같은 역전 현상을 야기. 즉, 은행채 금리의 정상화 이전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소비자들이 금리가 낮은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할 경우, 오히려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이 야기 가능. **다만, 급격한 비중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다만, 이러한 금리차가 급격한 은행 주담대 구성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은행들이 연말까지 보수적으로 은행 대출 운용 계획이기 때문. 즉, 신규로 판매되는 주담대가 크지 않을 경우, 해당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11/14) 은행 ELS 과징금 11월 중 통보 가능성 - 5900억대로 감소 가능성 제기 - 은행들의 홍콩 ELS관련 과징금에 대한 통보가 11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보도. 이 경우, 최종적인 절차는 26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 - 과징금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감경 가능성을 보도. KB의 경우 해당 언론 보도는 최대 감경 시 3천억원 내외를 추정. 이는 은행이 조직적, 고의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하지 않았고, 대부분 위반 사안이 경미한 사안들이며, 해당 사태 이후 지수 상승으로 상품의 상당 부분이 정상 상환되었고, 배상 역시 완료되었기 때문. - 한편 은행의 적극적인 배상 노력은 감경 사유로 적용 가능.	**우려 및 불확실성 완화 기대:** 은행의 홍콩 ELS관련 과징금 이슈가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이 당초 예상대비 감소하고, 해당 금액 또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주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되었던 사안의 해소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기대. **25년 중 선제적 충당금 적립 통한 비용 인식 시 26년 실적에 긍정적 기여 판단:** 26년 은행들의 이익 성장률은 낮아질 전망인데, 이는 교육세 및 법인세 인상 등의 요인에 기인. 그러나,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윤곽이 일정 수준 공표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충당금 인식이 25년 중 가능하다면, 이는 올해 은행들의 이익을 일부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반대로 내년 이익 증가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 전망. **다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 규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제고 여부:**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 규제에 대한 시장 신뢰도 제고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 즉, 은행들이 본연의 기능인 시장 유동성 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질 경우, 이는 은행주에 대한 일부 할인 요인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11/12) 미래에셋, 한투 IMA 1호 사업자, 키움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과 한투증권의 자기자본 8조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을 심의, 의결. - 증선위는 이날 별도로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도 의결. - NH증권도 IMA 사업자 지정을 대기하고 있으며. 발행어음 관련, 하나증권은 최근 실사를 마쳤고, 신한증권은 실사를 진행중.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11월 외평위 심사, 실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신규 기업금융 사업자 인가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 기대:** IMA-발행어음 신규 사업자 인가가 발표되었음. 이에 따라 인가가 확정된 회사들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비즈니스를 통해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전망. 발행어음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평균 마진은 약 150~200bp 정도 수준이며, IMA의 경우 전례는 없지만 운용보수 약 50~100bp에 성과보수 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규 시장 진입자 증가 등 운용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마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11/11) 원화 값 급락에 금융사 건전성도 흔들 -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 은행지주사의 경우 원화 가치 하락 시 외화 위험자산 평가액이 늘어나며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악화되기 때문. - 자본비율 악화 시 금융지주사들의 M&A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대출 여력 축소 등이 우려될 수 있음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외화부채 환산손 발생 가능:** 증권사들의 경우 과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그 기조에 변화가 감지. 이는 크게 1) 고객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외화자산 보유 증가 및, 2) 해외법인 자산 확대 과정에서 외화채 발행 등에 따른 환 익스포져 확대 등에 기인. 물론, 환율 손익의 경우 회사별 헤지 등 전략 여부에 따라 변동성은 다변화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시 외환평가이익 증가하는 경향 관찰.
보험	**(11/12) 손해율 치솟는데, 간병인 보험 출혈경쟁** -금융당국 자제령에 잠잠했던 간병인보험 출혈경쟁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도. - 최근 국내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내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최대 보장 한도를 20만원까지 상향. - 먼저 메리츠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일당을 상향하자, DB손보가 이를 20만원까지 높이고, NH손보,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등도 일부 참전 - 앞서 보험사들은 당국의 경쟁 자제령에 일당 한도를 줄여왔던 상황.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이 400%에 육박했기 때문.	**신계약 경쟁 강화 → 언더라이팅 손익 부진 가능성 우려 점증될 전망:** 보험사 3분기 실적의 주요 화두는 회사별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손익 악화폭이 확대된 점이었음. 초기 이는 단순한 전년도 의료파업 이연 효과로 여겨졌으나, 손해율 상승세가 점차 확대되고, 악화 사이클 유지 기간이 길어지며, 만성적 사이클 악화에 대한 시장 우려로까지 확대. 결국 보도된 회사별 담보 강화를 통한 신계약 경쟁은 학습효과에 따라 추가적인 미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
	(11/10) '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로' 정부 관리급여 목록 논의 본격 착수 -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 착수 - 목록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는 상황 - 당초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관리급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반발에 목록 구체화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는 실행 시 유의미한 손해율 개선 효과 기대:** 100%를 크게 상회하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의 핵심은 결국 비급여 청구액 증가에 있다는 점에서, 기사에 언급된 관리급여 제도 등 본질적 과잉진료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개선될 경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 및 수익성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다만, 다양한 사회 참여 계층에서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실제 실행 여부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5-11-17 (월)	3분기 지역경제동향	미국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일본 3분기 GDP
		일본 9월 산업생산
2025-11-18 (화)	3분기 가계신용(잠정)	미국 10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미국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2025-11-19 (수)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10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9월 경상수지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비통화정책회의
		영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영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9월 핵심기계류수주
2025-11-20 (목)		미국 10월 기존주택판매
		미국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10월 경기선행지수
		미국 11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총회 협의회
		독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중국 11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2025-11-21 (금)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미국 옵션만기일
		미국 11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11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독일 11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영국 11월 CIPS/S&P 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영국 1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10월 소매판매
		영국 10월 공공부문 순차입/순상환
		일본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11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예비치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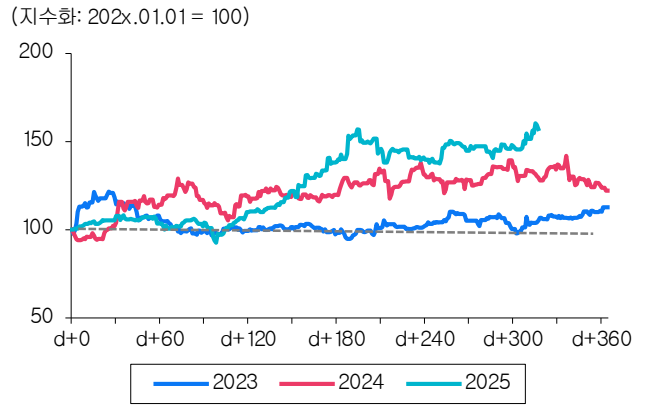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5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3,209.4	4,011.6						1.5%	9.7%	65.8%	67.2%
	KRX은행	173.3	1,310.7						3.7%	8.4%	48.1%	57.2%
	KRX증권	54.2	1,583.7						4.7%	9.7%	106.1%	114.9%
	KRX보험	78.7	2,648.1						0.5%	1.4%	36.1%	39.5%
	결제 지수**	1.381	n/a						8.4%	(2.7%)	60.6%	54.2%
은행	KB금융	49.4	129,500	52.2	0.8	10.8	8.0	18.7	4.7%	11.9%	44.0%	56.2%
	신한지주	38.6	79,600	45.5	0.7	10.2	7.5	20.3	2.8%	12.0%	40.9%	67.1%
	하나금융지주	26.3	94,400	45.1	0.7	10.5	6.5	11.9	2.6%	9.3%	57.9%	66.2%
	우리금융지주	19.7	26,800	37.1	0.6	10.5	6.1	5.4	4.3%	4.9%	68.8%	74.4%
	기업은행	16.5	20,650	32.0	0.6	9.1	6.4	3.8	4.8%	8.0%	44.1%	44.1%
	BNK금융지주	4.8	15,400	38.0	0.5	8.2	5.9	14.1	4.8%	6.4%	64.7%	48.9%
	JB금융지주	4.7	24,650	37.5	0.5	9.1	5.1	122.8	6.9%	8.1%	38.6%	51.4%
	DGB금융지주	2.3	14,430	44.6	0.9	13.3	6.7	5.2	6.7%	4.9%	77.1%	76.4%
	카카오뱅크	10.5	22,000	45.0	1.5	6.9	22.7	5.2	2.1%	(2.4%)	9.5%	4.5%
증권	미래에셋증권	13.3	23,400	40.8	1.0	9.5	13.7	25.9	1.3%	9.1%	160.0%	191.4%
	NH투자증권	7.6	21,400	41.2	0.8	10.8	8.2	22.6	7.4%	8.4%	63.4%	53.4%
	한국금융지주	9.5	169,700	19.4	0.8	17.7	5.3	73.3	4.1%	14.4%	138.0%	138.0%
	키움증권	7.6	288,000	28.2	1.1	17.7	6.7	25.1	2.3%	14.3%	121.7%	147.8%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21.4	121,900	50.6	2.1	23.5	9.3	9.9	5.8%	7.5%	19.0%	17.2%
	삼성화재	22.8	494,500	42.6	1.3	13.2	10.0	6.1	1.3%	10.5%	47.4%	37.9%
	삼성생명	30.7	153,600	44.8	0.7	6.8	11.9	11.5	1.1%	(5.3%)	60.7%	62.0%
	DB손해보험	9.4	132,400	25.1	1.2	20.3	5.9	-5.4	(4.6%)	(0.9%)	25.5%	28.8%
	한화생명	2.7	3,130	0.0	0.2	5.8	4.2	-11.7	2.6%	(1.6%)	20.6%	27.2%
	현대해상	2.6	29,000	0.0	0.5	17.7	2.9	-15.8	2.7%	4.7%	1.2%	17.4%
결제	카카오페이	7.0	52,000	n/a	n/a	2.8	146.3	흑전	2.6%	0.4%	132.7%	98.1%
	NHN KCP	0.7	16,740	n/a	n/a	16.4	13.8	2.3	13.6%	(4.9%)	146.2%	135.8%
	KG이니시스	0.3	10,670	n/a	n/a	8.9	4.1	68.0	5.5%	0.6%	21.7%	20.7%
	KG모빌리언스	0.2	4,895	n/a	n/a	10.7	4.6	13.0	2.8%	(4.8%)	19.7%	3.2%
	나이스정보통신	0.2	22,850	n/a	n/a	7.4	7.2	174.3	2.9%	2.2%	24.7%	27.4%

참고: 11/14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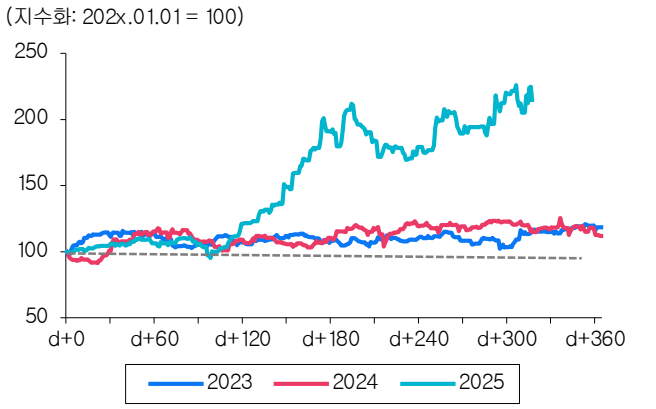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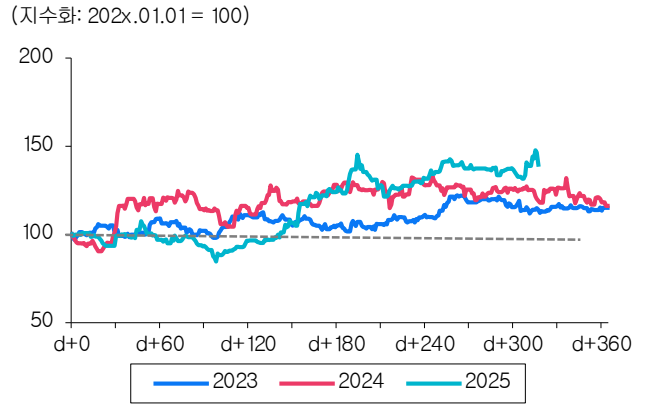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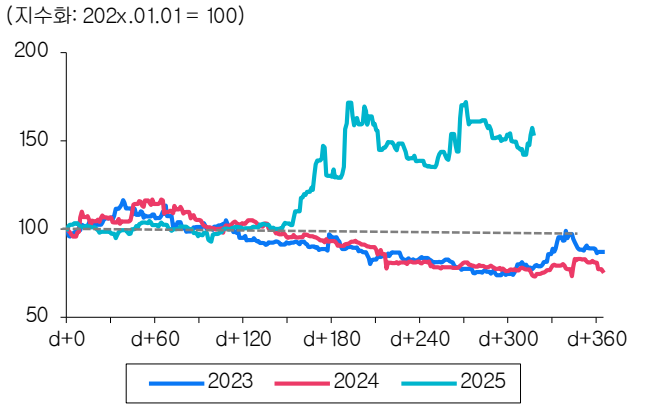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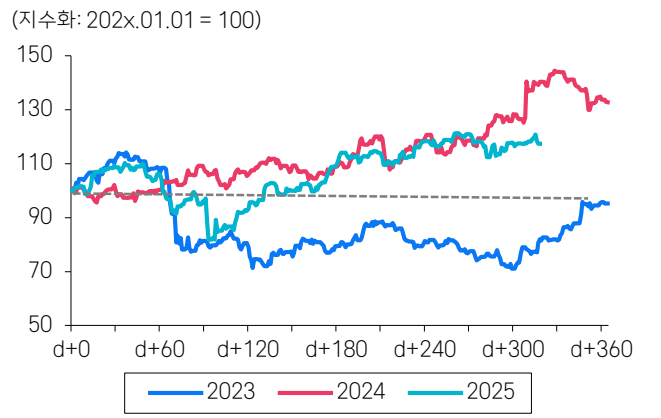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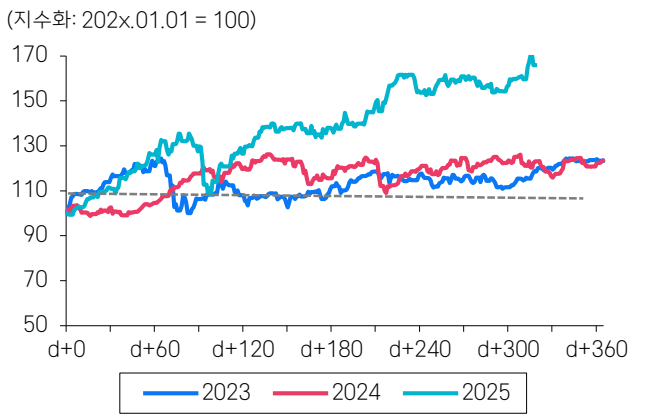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5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26.5	83.2	2.4	16.7	14.9	2.9	(3.4)	1.7	23.8	26.7
		Bank of America	384.2	27.9*	1.4	10.5	13.7	18.1	(1.1)	4.3	12.5	19.7
		Citigroup	179.5	122.3	0.9	7.6	13.2	27.9	(0.5)	4.2	45.9	42.5
		Wells Fargo	267.0	117.1	1.6	12.3	13.5	17.6	(1.2)	1.3	14.4	21.1
		PNC Financial	72.2	59.4	1.3	12.2	11.6	15.4	(0.1)	3.2	(11.4)	(4.6)
	유럽	Banco Santander	160.7	65.0	1.4	13.3	10.0	15.2	5.0	8.3	103.0	108.1
		Unicredit	116.7	91.8	1.5	16.5	9.2	11.4	2.4	1.9	58.2	67.4
		BBVA	123.1	54.7	1.8	17.8	10.0	5.1	5.2	17.0	96.1	94.5
		ING Group	78.6	107.7	1.3	12.1	11.3	(1.0)	1.5	6.3	51.0	49.5
		Lloyds	71.1	94.0	1.3	11.0	14.7	0.0	1.0	8.3	62.0	67.0
		Barclays	75.8	63.4	0.9	9.7	11.2	0.0	2.2	9.0	59.4	54.2
	일본	Mitsubishi UFJ FG	191.4	63.5	1.3	10.2	13.4	14.6	5.9	9.8	34.4	32.8
		Sumitomo Mitsui FG	108.1	57.3	1.1	9.5	11.8	21.3	4.0	11.0	19.1	15.0
		Mizuho FG	85.4	34.2*	1.2	10.2	12.3	23.4	5.0	16.0	40.8	36.8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86.8	30.2*	0.6	9.3	6.6	1.6	3.8	13.1	42.8	26.1
		China Construction Bank	286.8	30*	0.6	10.0	6.5	(1.4)	2.7	9.6	42.5	28.9
		Agricultural Bank of China	406.7	30.8*	0.8	10.0	7.9	4.0	1.3	10.4	62.4	39.3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101.1	N/A	1.5	9.0	20.0	(38.4)	2.1	4.2	8.2	12.2
		AIG	42.0	194.7	1.0	9.4	12.3	흑전	1.1	0.9	2.6	6.8
		Travelers Insurance	64.1	65.7	2.0	19.1	11.4	17.4	2.7	9.8	10.1	19.3
	유럽	Allianz	165.0	78.4	2.3	18.1	13.0	12.3	4.4	1.0	27.7	24.2
		AXA	95.0	53.4*	1.7	17.2	8.9	23.5	2.6	(4.3)	13.6	12.2
		Generalli	60.8	56.8*	1.6	13.8	12.2	13.9	2.9	3.6	24.7	23.8
	일본	Tokio Marine	74.1	39.9*	2.2	20.3	11.2	(2.7)	1.4	(0.9)	0.0	3.4
		Daiichi Life Insurance	29.2	47*	1.2	11.0	12.1	(13.4)	11.8	12.2	21.8	15.1
	중국	Ping An Insurance	148.5	35*	1.1	14.1	7.6	9.7	3.5	11.6	31.5	30.2
		China Life Insurance	155.7	18.9*	1.3	21.3	6.1	18.5	6.6	19.3	78.3	86.5
		PICC P&C Insurance	53.7	34.7*	1.4	16.1	9.4	38.4	(2.7)	0.5	54.4	52.9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46.4	106.5	2.2	14.3	16.2	20.4	0.6	4.3	33.3	38.1
		Morgan Stanley	260.4	66.9	2.6	16.1	16.6	24.0	0.9	2.4	22.2	30.3
		Charles Schwab	172.5	92.8	3.7	20.2	20.4	54.4	(0.9)	1.0	17.1	27.5
		Robinhood	110.3	39.7	12.4	21.9	62.4	25.9	(6.0)	(6.8)	279.0	228.8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46.0	77.4	8.0	34.5	23.1	10.4	(3.1)	10.5	24.5	20.3
결제	미국	VISA	646.3	21.7*	16.2	63.1	26.0	24.4	(1.8)	(1.6)	6.6	4.4
		MasterCard	490.1	18.5*	60.5	203.6	33.3	17.8	(1.1)	(0.8)	4.6	3.6
		PayPal	58.8	2.6*	3.0	25.4	12.2	28.7	(5.1)	(4.9)	(26.8)	(26.4)
	유럽	Adyen	51.6	0*	8.3	22.5	41.2	15.3	5.3	(3.8)	13.9	(2.0)
핀테크	미국	Block	36.8	0*	1.6	6.7	24.8	(46.5)	(7.6)	(18.9)	(28.3)	(28.8)
		Upstart	3.8	0*	5.1	15.9	79.7	N/A	0.3	(19.0)	(43.4)	(37.1)
		Affirm	23.3	0*	6.0	10.2	74.4	531.4	(4.2)	2.1	25.6	15.8
	중국	LuFax	2.4	N/A	N/A	(2.8)	N/A	흑전	0.0	0.0	17.0	10.9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11/14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